

완도 해양치유센터 운영상황 점검

-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, 완도 해양치유센터 방문 -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(수)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과 시설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.

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난해 11월 문을 열고 해조류, 머드(Mud), 해수 등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16종의 치유 프로그램(Program)을 운영 중으로 약 18천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갔다.

강 장관은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명상풀, 머드 테라피(Mud Therapy) 등 각종 체험시설을 점검하였으며, 해조류 원물을 이용한 마스크팩(Mask Pack)과 컬러 LED(Color LED)를 이용한 치료로 ▲피부 개선 ▲스트레스(Stress) 완화 ▲심신 안정 등에 도움 주는 인기 치유 프로그램인 ‘해조류 컬러테라피(Color Therapy)’도 직접 체험했다.

강 장관은 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“최근 고령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,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많은 국민분이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.”라며, “우리 나라 1호 해양치유센터인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해양 치유 문화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	책임자	과 장	최재환 (044-200-52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윤희 (044-200-5253)